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 충만하심

성령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그들의 죄를 씻어 중생시키시고 그들 속에 오시므로 인치시고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하신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충만하심으로 힘을 얻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 즉 그들의 중생과 회개와 믿음으로부터 그들의 성화의 과정 전체는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생활이다.

성령의 교통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며 산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13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성도 속에 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 성령께서는 위로자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받은 성도 개개인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주께서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4:26), 또 “그가[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다(요 16:8, 13).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6에서 ‘성령의 감화’라는 말을 하였다. 또 그는 에베소서 4:30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19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했다. 이 말씀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활동하심을 말한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는 진리의 교훈, 곧 성경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신다. 우리는 그의 친밀한 교제를 물리치지 말고 항상 응답해야 하고 그를 근심시키거나 그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3-14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육신’은 죄악된 몸을 가리킨다고 본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에게 남은 죄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 4, 6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전통본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했다. 성도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며 그때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은 성화(聖化)의 방법이기도 하다. 갈라디아서 5:16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구약 에스겔 36:27에 예언된 바이

었다. 거기에 보면, “또 내 신[영=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하였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므로 율법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성도의 성화(聖化)는 성령의 주도적 사역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정의(知情意)를 주관하신다. 특히 그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13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 욕심을 따라 품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품는 선한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일 것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심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힘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18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교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무지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경우가 많다. 또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를 작게 여기고 세상의 위협적 악의 세력이나 마귀의 시험을 대항하여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충분히 마셔 목마르지 않은 것과 같고 배

고픈 사람이 밥을 충분히 먹어 배가 부른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셨다. 요한복음 7:37-39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13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활동들을 방해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기능들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게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모든 성도가 성화의 삶을 위해 또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힘있는 봉사의 일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성령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 죄들을 청산하기를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곧 성경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서 교통하시며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평안

한 마음과 확신을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체험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으로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체험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특권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신다. 그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무감각하고 슬픈 감정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약한 의지까지도 새롭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 큰 기쁨, 큰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방법은, 성경의 전체적 진리에 비추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킬 것이다. 죄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충만히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복이며 특권이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철저한 회개와 성경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기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본분과 교회 직분자들의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성령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기도한다.